

2023. 10. 8.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 한인 교회 주일 예배

설교: 임동진

본문: 누가복음 8:26-39

제목: 예수를 만난 사람들(36) – 거라사 귀신들린
청년, 하나님 행하신 큰 일

설교 30 분, 13 페이지, p12-24-

본문 읽기

(표준새번역) 8:26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에 닿았다.

(ESV) 8:26 Then they sailed to the country of the
Gerasenes, which is opposite Galilee.

8:27 예수께서 물에 내리시니, 그 동네에 사는 3)귀신
들린 어떤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8:27 When Jesus[d] had stepped out on land, there
met him a man from the city who had demons.
For a long time he had worn no clothes, and he
had not lived in a house but among the tombs.

8:28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8:28 When he saw Jesus, he cried out and fell
down before him and said with a loud voice,
"What have you to do with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I beg you, do not torment
me."

8:29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귀신이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 나가곤
하였다.

8:29 For he had commanded the unclean spirit to
come out of the man. (For many a time it had
seized him. He was kept under guard and
bound with chains and shackles, but he would
break the bonds and be driven by the demon
into the desert.)

8:30 예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는 "군대입니다" 하였다.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8:30 Jesus then asked him, "What is your name?"
And he said, "Legion," for many demons had
entered him.

8:31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던지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8:31 And they begged him not to command them
to depart into the abyss.

8:32 마침 그 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8:32 Now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there on
the hillside, and they begged him to let them
enter these. So he gave them permission.

8: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들은 호수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빠져 죽었다.

8:33 Then the demons came out of the man and
entered the pigs, and the herd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drowned.

8:34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 가서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퍼뜨렸다.

8:34 When the herdsmen saw what had happened,
they fled and told it in the city and in the
country.

8:35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 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였다.

8:35 Then people went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and they came to Jesus and found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gone, sitting at the feet of Jesus, clothed and in his right mind, and they were afraid.

8:36 처음부터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8:36 And those who had seen it told them how the demon-possessed[e] man had been healed.

8:37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타시고 되돌아가셨는데,

8:37 Then all the people of the surrounding country of the Gerasenes asked him to depart from them, for they were seized with great fear. So he got into the boat and returned.

8:38 귀신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돌려보내셨다.

8:38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gone begged that he might be with him, but Jesus sent him away, saying,

8:39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전파하였다.

8:39 "Return to your home, and declare how much God has done for you." And he went away,

proclaiming throughout the whole city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예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어느 나라의 새 왕이 등극했습니다. 지혜롭고 능력도 출중했던 왕은 좋은 아내를 맞이했고, 멋진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나라는 더 풍요해졌고, 백성들도 평안했습니다.

어느날, 왕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물어도 제각기 다른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1 년이면 될 줄 알았지만, 20 년 만에 세상 끝까지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나라는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병들어 죽었고, 아이들은 훌쩍 커서 새 가정을 이루었으며, 손자 손녀가 태어나 자라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던 여행을 뒤로하고, 수개월간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지내게 됩니다. 하루 하루의 일상이

지겨워질 무렵, 노을 진 하늘을 보고 있던 왕은
무엇인가를 깨닫고는 그 자리에 꿇어 앉아
통곡합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찾아다니느라 가장 귀한 20 년의
평범한 일상을 놓쳐 버렸구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그 소중한 순간들을 내 호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 허비하였구나!”**

왕은 자기 옆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이 가장
소중하며, 매일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울며, 웃으며,
화내며, 땀 흘려 일하며, 지루하며, 우울하며,
초조하며, 여유롭기도 한 그 하루하루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라사 귀신들린 청년을 찾아가시다

오늘 본문 앞 22 절,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표준새번역) 누가복음 8:22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떠났다.

(EVS) Luke 8:22 One day he got into a boat with his disciples, and he said to them,
"Let us go across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So they set out,

그래서 26 절. 도착한 곳이 거라사였습니다.

(표준새번역) 8:26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에
달았다.

(ESV) 8:26 Then they sailed to the country of the Gerasenes, which is opposite
Galilee.

27 절. 거기에서 어떤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다녔으며,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8:27 예수께서 물에 내리시니, 그 동네에 사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8:27 When Jesus[d] had stepped out on land, there met him a man from the city
who had demons. For a long time he had worn no clothes, and he had not lived in a
house but among the tombs.

29b 절. 그는 자기를 묶어 놓은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어버릴 만큼 힘이 셧습니다. 귀신의 힘이었겠지요.

8:29b ...귀신이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서
광야로 뛰쳐 나가곤 하였다.

8:29b (For many a time it had seized him. He was kept under guard and bound
with chains and shackles, but he would break the bonds and be driven by the demon
into the desert.)

29a 절. 악한 귀신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성경과
원문에는 ‘더러운’ 귀신이라 적고 있습니다.

8:29a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8:29a For he had commanded the unclean spirit to come out of the man. ...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28 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제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8:28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8:28 When he saw Jesus, he cried out and fell down before him and said with a
loud voice, "What have you to do with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I beg
you, do not torment me."

30 절. 그 귀신의 정체는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군 편제의 여단, 대략
3000 명정도 됩니다.

8:30 예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는
"군대입니다" 하였다.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8:30 Jesus then asked him, "What is your name?" And he said, "Legion," for many
demons had entered him.

31 절. 군대 귀신들은 예수께 간청하면서,

8:31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던지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8:31 And they begged him not to command them to depart into the abyss.

32 절. 저 산기슭에 있던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

8:32 마침 그 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8:32 Now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there on the hillside, and they begged him to let them enter these. So he gave them permission.

33 절.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돼지 2000 켤 된다고 합니다.

8: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들은 호수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빠져 죽었다.

8:33 Then the demons came out of the man and entered the pigs, and the herd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drowned.

자기 이웃이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회복된 것보다, 자기들의 돼지가 더 소중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손해 본 것은 너무 큰 일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7 절. 이 소식을 듣고 쫓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되돌아가십니다.

8:37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타시고 되돌아가셨는데,

8:37 Then all the people of the surrounding country of the Gerasenes asked him to depart from them, for they were seized with great fear. So he got into the boat and returned.

39 절, 예수님의 명령대로 집으로 돌아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온 동네에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개역개정) 39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ESV) 8:39 “Return to your home, and declare how much God has done for you.”
And he went away, proclaiming throughout the whole city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이 청년이 거라사와 데가볼리 온 동네에 전파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 예수 믿는 백성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이 중에서 저는 여러분과 이 세번째 큰 일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병행구절인 막 5:19 절(한글, 영어),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집으로, 가족에게, 친구에게 돌려보내셨다고 적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제자의 삶도 좋지만, 잃어버린 그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전파하는 제자의 삶도 잘하는 겁니다.

(표준새번역) 마가복음 5:19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ESV) Mark 5:19 And he did not permit him but said to him, "Go home to your friends and tell them how much the Lord has done for you, and how he has had mercy on you."

특히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는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평범한 일상을 귀신에게 빼앗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가족 관계의 단절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 있었던 그는 가족과의 관계가 다 끊겼을 겁니다. 처음에야 가족들이 도와주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가족을 떠나 혼자서 무덤 사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 모든 사회적 관계 단절

친구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멀어져갔을 겁니다. 발가벗고 다니며 밤낮으로 소리지르는 이 사람을 누가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친구가 되겠습니까?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 놓았다는 것으로 두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이 청년의 고통, 인권, 평안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기회 상실

그 사람은 직장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귀신들려 발가벗고 다니며 소리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사람에게 누가 일자리를 줍니까? 직장이 없으니 본인의 생계도 큰 문제요, 또한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더 커졌을 겁니다.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출근할 곳이 있고, 나에게 잔소리하며 해야 할 일을 떠 넘겨주는 그 일상의 삶을 그는 빼앗겨버렸던 겁니다.

평범한 일상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직장도 귀신에게 모두 빼앗기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았을 겁니다.

✧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며 다른 것을 잡다

레기온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 3000 마리 귀신의 힘을 주었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가족을 위해서야, 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야,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소중한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잔소리하며 최선을 다해 서포트 하지만, 정작 자녀와 대화하는 것은 뒤로 밀리고, 자녀가 정작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래희망을 가졌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마치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힘을 주고는 나머지
모든 인격은 삼켜버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돈, 명예, 욕망을 하나 채워주며 우리 인격과 삶 전체를
삼켜 버립니다.

✧ 달라진 그리스도인 청년의 일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사람의 일상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사람이 귀신에게 놓임 받고 난 후, 거라사 지방과
데가볼리 지방을 다니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무엇이라고 전파했을 까요? 이 찬양은 그 사람의
고백과 참 닦았을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라오

마무리

왕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수십년을
 찾아 헤메고, 세상 끝까지 가서도 찾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귀신 들린 한 청년, 친구도, 동네 이웃도, 심지어
 가족도 포기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고 산기슭에 방치했고,
 무서워서도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풍랑과 파도를
 넘어 거라사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사이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신 예수님은 그
 옆에 있던 돼지 2000 마리보다, 그 남자를 사로잡은
 귀신 3000 마리보다 오직 그가 더 소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 청년,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로 돌려보내십니다. 그가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고 빼앗겼던 일상을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큰 일’의 결과입니다. 이 작은 일상이 보석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셔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이 이 가사 내용처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매일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행복(화려하지 않아도)

행복

손경민

D A/C# Bm7 F#m/A G D/F#

화려하- 지않아도- 정결하- 게사는삶- 가진것- 이적어도-
눈물날- 일많지만- 기도할- 수있는것- 억울한- 일많은나-

Em7 A7 D A/C# Bm7 F#m/A

감사하- 머사는삶- 내게주- 신작은힘- 나눠주- 머사는삶-
주를위- 해참는것- 비록짧- 은작은삶- 주뜻대- 로사는것-

G D/F# Em7 A7 D 1. G/A A 2. G/A A

이것이- 나의삶에- 행복이라오- 이것이

D D/F# G D/F# G D/F#

행 복 행복이라오 - 세상은- 알수없는 -

Em7 A7 D D/F# G D/F#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 복 행복이라오 -

Bm7 F#m7/A G D/F# Em7 A7 D

하나님- 의자녀로- 살아가는것- 이것이-행복 이라오 -

기도: 자기에게 맞는 기도 제목으로

- ➔ 풍랑과 파도를 지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자유와 평안을 주시며, 가장 소중한 일상의 삶과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나도 하나님 아들 예수를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 ➔ 이 교회가 나의 신앙의 모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섬김을 배우고, 여기에서 나의 동역자, 기도의 동지를 만나게 하소서
- ➔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 주며 사는 삶을 행복으로 알고 살게 하소서.
- ➔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을 수 있고,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게 하소서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3.10.8.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누가복음 8:26-39)

1. 거라사 청년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시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버림받은 그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2.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사단(세상)은 나의 어떤 욕망을 부추기며 유혹하고 있습니까?
3. 예수님이 나를 평범한 일상 속으로, 깨어진 관계 속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 어떤 기대감을 느끼게 합니까?
4.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를 읽어 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며, 어느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되십니까?

